

전남 동부권

폐교위기 관기초 이젠 '특급학교'

여수 소라면, 교사·학부모 뜻 모아 수업 질 개선

'100대 학교' 선정...전입 대기생 100명 넘어

학생 수가 급감해 매년 통폐합 대상학교로 거론됐던 여수지역 한 초등학교가 이젠 전학을 오려는 학생들이 줄을 서는 학교로 탈바꿈해 화제다.

교 '살리기'운동을 추진하던 교장과 새로운 학교 만들기를 고민하던 교사, '좀더 다른' 교육을 바라던 학부모들이 뜻을 모으면서 비롯됐다.

여 명이나 대기할 정도로 인기학교로 변모했다. 학교 측은 전교생 수를 더 늘릴 수도 있지만 학생수 증가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더 이상 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취약계층에 안정된 일자리를"

보성군, 공동체 일자리 사업 1차 63명 모집

보성군은 저소득층·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 마련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개월씩 각각 1, 2차로 나눠 시행된다. 군은 28일까지 지원을 받아 1차 모집인원 63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자 선발은 신청자의 재산, 가구소득 적격자 중에서 세대원이 많은 자, 실직·폐업자, 장애인 가족 등은 가점을 부여하며,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다음달 중순 이후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즐겁고 신기한 과학을 만나다

순천시시는 지난 26일 시청별관 대회의실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탐구심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과학 퍼포먼스쇼 '사이언스 볼'을 개최했다.

순천시시는 지난 26일 시청별관 대회의실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탐구심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과학 퍼포먼스쇼 '사이언스 볼'을 개최했다.

고흥 김 안정 공급망 확보

군-풀무원 판로 지원 업무협약

고흥군이 지역 김 관측과 브랜드화로 발벗고 나섰다. 고흥군은 27일 풀무원식품 주식회사(대표 이효율)와 고흥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고품질 친환경 브랜드의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고흥 김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로 유통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 고흥 김 지리적 표시제 등록과 시설회사를 통해 친환경 고품질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고흥군 유통(주)을 통해 물량수급을 조절해 연간 1480만속을 생산,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산지출하시기 수급조절 불안과 브랜드화 미비로 타지역에 비해 낮은 가격을 받아왔다.

전 북

"고군산 황백화 무기질소 부족 때문"

도 수산기술연구소 "김 업체 불균형으로 변색"

고군산열도 섬지역의 김 양식장에서 나타나는 황백화 현상은 현저히 낮은 '용존 무기질소' 때문으로 밝혀졌다. 27일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수산 질병센터에 따르면 최근 국립수산물학원 해조류 바이오연구센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군산열도 황백화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추적한 결과 용존 무기질소 부족이 원인으로 최종 분석됐다.

로 드러났다. 무기질소가 부족하면 김 업체가 생리적인 불균형을 이루게 돼 색깔이 누렇게 변하거나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산질병센터는 황백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민들에게 어장관리 요령을 공개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수산질병센터 관계자는 "충분히 성장한 업체는 이른 시일 내에 채취하고, 시비제(김 영양제) 또는 농업용 비료(요소+복합) 등을 잎 표면에 직접 뿌리거나 유기산과 혼합해 김발 전체를 담그는 방식으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획 분할, 지자체 '相生'이 기준"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방안 세미나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얻은 토지의 행정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 등 지역 3개 시·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과 지자체, 주민이 공감하고 상생하는 합리적인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광대 이상재 교수는 27일 서울 중앙박물관 1층 소강당에서 열린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새만금지역의 행정경계 원칙으로 역사상변경, 지형적 특성, 면적배분 형평성, 자치행정권 존중, 토지이용 및 시설관리 효율성, 경제발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3개 시·군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관리체계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 새만금 지역이 경제중심지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간척지의 행정관할권 대안 가운데 수계별 중심선과 갑문관리권을 기준으로 한 경계설정안.

박경 성신여대 교수는 간척예정지의 일부 수로를 유지해 본래 해안지역 주민의 자유통행을 유지하네 네덜란드 사례를 들며 "새만금으로 상정되는 더 넓은 경계선으로 진출이 자유롭도록 하는 게 전북도 전체의 경제와 서해안시대를 여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보경 성신여대 교수는 "고군산열도는 미래에 더욱 중요성이 증대될 수 있는 지역으로 새 경계 설정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김제시와 부안군은 '새만금 3·4차 방조제와 다기능 부지를 군산시 관할로 한다'는 행안부 고시(2010년 11월17일)에 반발해 "일제 강점기에 그려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만금 일부 구역을 군산시가 맡게 한 결정은 부당하다"면서 지난달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바다를 매워 육지로 거듭난 새만금 간척지는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인 4만100ha 규모로 이를 어느 지자체가 관할할 것인가하는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를 하고 있다.

김제소방서 '사랑의 헌혈운동'

김제소방서(서장 김화성)는 27일 꺼져가는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이어가기 캠페인에 참여해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요즘 이상한파로 인해 응급환자와 교통사고 환자 등이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구제역 등으로 헌혈이 감소해 겨울철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 이번 헌혈에는 소방서 직원 40여 명이 참여했다. 김화성 김제소방서장은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안전은 책임지는 소방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헌신·봉사하는 공직문화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 신

전주시 '도민 체육대회' 대행사 공모

전주시와 전주시 체육회는 다음달 15일까지 '2011 전북 도민 체육대회' 대행사를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개·폐회식(식전·후 공개행사와 축하공연, 불꽃놀이) ▲성화제와 및 봉송, 점화 등 2개 분야이며, 공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영업소 소재지가 도내에 있고 이벤트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이다. 올해 도민 체육대회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주시에서 개최된다. 문의(063-277-7434)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정읍시 '블로그 기자단' 내달부터 시정 홍보

정읍시 공식 블로그인 '단어와 품이'(blog.naver.com/j007008)에서 활동할 '사이버 홍보대사'들이 지난 25일 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올해 첫 간담회를 가졌다. 시 '블로그 기자단'은 다음달부터 ▲정읍의 문화와 예술 ▲관광과 축제 ▲정읍의 일상풍경을 글

과 사진, 동영상 등으로 답사 시 대표 블로그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 본격적으로 개입이 된다. 시 '블로그 기자단'은 모두 29명으로 정읍뿐 아니라 대전과 서울 등 전국 각지의 블로거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남원 '지적측량 무한서비스' 시행

남원시가 올해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감동 실현을 위해 '지적(地籍)측량 무한서비스'를 시행,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평일 입회비가 불가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연중무휴 공휴일 '지적측량 예약처리제'를 운영하고 있

다. 또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회송을 우편편지를 발송해 불만이나 업무처리 개선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찾아가서 해결하는 '지적측량 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성진기자 bs8787@

구제역 확산 여파...순창 수렵장 완전 폐쇄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순창군은 그동안 운영하던 수렵장을 지난 1일자로 일시종지 조치한데 이어 완전 폐쇄키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군은 930여 명의 포획승인을 받은 엽사에게 수렵장사용료 수입 2억3000만원

가운데 증지기간인 75일분 62%인 1억4000만원을 다음달 28일까지 반환할 계획이다. 군은 수렵장 변경 고시문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수렵인에게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고지했다. /전북취재본부=이희희기자 dhlee@

'군민 명예 청렴감사관' 곡성군 15명에 위촉장

곡성군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군민 명예 청렴감사관' 제도를 운영한다. 곡성군은 지난 25일 군청 통마당에서 각 읍·면별로 선발된 '군민 명예 청렴감사관'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건설·구매·용역 등 공공사업의 부조리와 각종 인·허가, 보조사업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초 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됐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유당공원내 '광양 숲' 준공기념 시비

"광명천지 밝은 날에 중중부름 받은 박세후/ 양지바른 인동리에 바람 막이하기 위하여/ 숲과 나무 조성하여 백성안녕 무릇 오백년/ 준법정신 지켜가며 노력하신 장한 그 업적/공을 세운 보답으로 귀한 재원 영출하였네/ 길이 보존 백년고목 감사하여 여러 목민관/ 염려에만 골몰하다 이제 와서 빛을 보았네." 광양시 광양읍 유당공원에 자리한 '광양숲'을 조성하고 보존한 조선시대 목민관을 칭송하는 한시비(漢詩碑)가 세워졌다. 광양시는 지난해 11월 '광양숲'을 도심의 전통 숲으로 복원한 데 이어 운과 장한정(전 광양향교 전교)에게 한시를 의뢰했다. 시비에는 광양숲을 500년전 조선



중종때 박세후 현감이 조성했고 그동안 백성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면서 이를 보존하기 위해 많은 목민관이 노력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도심 전통 숲으로 복원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4079@